

2024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6
나. 외국인 투자 유치 가속	7
다. 국가 경제 성장동력 다각화 가속	8
라. 석유산업 의존도 약화 추진	9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2
2. 시장 분석	22
가. 전략적 가치 및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2
나. 교역	23
다. 투자	26
라. 프로젝트	30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1
가. 교역	31
나. 투자	35
다. 협력 유망 분야	36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39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0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1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7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9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0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1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4년 경제 전망 : ① 상승

경제적으로는 원유 일일 생산량 감축 조치 유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국제 수급 불균형 및 겨울철 에너지 수요 전망에 근거하여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어 '24년에도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개발 의지 지속 및 내수경제 역시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또한 '24년부터 도입키로 발표한 중동지역본부 정책이 본격화되면 국가적 차원의 실리도 확보할 것으로 예측

▣ 중국발 경기 부양 및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에 따른 고유가가 경제성장을 견인 전망

- 2023년 3분기부터 국제유가 반등 및 지속 상승 흐름 지속
 - 2023년 저유가 및 글로벌 경기 등락에 따라 3.1%의 상대적 저성장 기록
 - 연초 국제유가 대폭 하락하며 사우디 국가 재정에 악영향 미쳤으나, 중국발 경기 부양에 따른 기대감과 글로벌 연말 석유 수요 증가 및 사우디 주축 OPEC+ 원유 일일 생산량 감산 조치에 따라 국제유가 지속 상승
 - * 국제유가 흐름 : ('22.3) 배럴당 122 달러 → ('23.1) 75 달러 → ('23.9) 93 달러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32.6	33.4	34.2	35.0	34.1	34.8	35.5	36.2
명목 GDP	십억 달러	714.99	846.58	838.57	734.27	868.59	1,110	1,060	1,080
1인당 명목GDP	달러	21,920	25,340	24,510	20,970	25,460	31,850	29,920	29,890
실질성장률	%	-0.1	2.8	0.8	-4.3	3.9	8.7	3.1	3.1
실업률	%	5.9	6.0	5.6	7.7	6.7	5.6	-	-
소비자물가상승률	%	-0.8	2.5	-2.1	3.4	3.1	2.5	2.8	-
재정수지(GDP대비)	%	-9.2	-5.9	-4.4	-11.2	-2.3	2.6	0.4	0.5
총수출	백만 달러	221,835	294,373	261,603	173,854	276,179	411,184	161,857	-
(對韓 수출)	"	19,590	26,336	20,841	14,980	24,271	41,640	16,072	-
총수입	"	134,519	137,065	153,163	131,998	152,849	189,877	99,445	-
(對韓 수입)	"	5,147	3,952	3,697	3,302	3,325	4,865	2,708	-
무역수지	백만 달러	87,316	157,308	108,440	35,856	123,330	221,307	62,412	-
경상수지	"	10,464	71,972	38,230	-22,810	44,320	152,840	-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3.75	3.75	3.75	3.75	3.75	3.75	3.75	3.75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72.8	229.9	131.9	230.8	193.0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4.2	42.5	45.6	54.8	67.2	78.9	-	-

주: 2023년은 추정치(무역은 상반기 기준), 2024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IMF, SAMA(사우디 중앙은행), 사우디 재무부, GASTAT(사우디 통계청), KITA

- ※ 보호무역주의 :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기조 지속
- ※ 외국인 투자 유치 가속 : 중동지역본부 및 경제특별구역 도입
- ※ 경제 성장동력 다각화 :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 및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 에너지원 다변화 : 국제유가 변동에의 취약점 보완 및 미래 에너지원 준비

가.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 자국 내 산업 기반, 노동력 육성 강화 및 보호 추세 지속

- 자국민 의무 고용 비율 지속 상향 조정 및 자국 콘텐츠 이용 장려
 -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 주도로 자국민 의무 고용 장려 정책인 Nitaqat 비율 상시 조정**/**
 - * Human Resource and Social Development
 - ** 무리 없이 기업 운영이 가능한 Medium-Green 등급을 위해서는 산업별로 상이하지만 최소 20% 이상의 사우디인 채용 필요
 - *** Low-Green, Red 등급의 경우, 신규 채용을 위한 비자 신청이 불가하고 근로자 이전이 제한되는 등 기업 운영에 제한 존재
 - Nitaqat과 별도로 엔지니어 직종은 20% 의무 고용, 특수 고객 서비스 업종은 70~100% 의무 고용 정책을 시행 중이며, 2023년 4월부터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도 자국민 채용 1차 단계를 실행했는데, 이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전체의 35% 이상 채용하는 것을 의미*
 - * 2022년 말 발표한 Saudization 대상 산업군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용
 - 사우디 현지화청(LCGPA*) 주도로 자국 제품 및 서비스인 로컬 콘텐츠 이용 문화 확산 노력 지속
 - * Local Contents and Government Procurement Authority
 - 로컬 콘텐츠 이용 정책은 이미 ARAMCO, SABIC, K.A.CARE, SEC, Ma'aden 등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이며, LCGPA 자체적으로도 사기업과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한 자국화 도모

- 자국 내 산업 기반 육성 및 보호 위한 정부 주도 조치 확대
 - 사우디 내 기반산업 점차 확립되면서 수입관세 인상, 반덤핑* 등 조치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의지 표출
 - * 자동차 배터리(납축전지)에 대한 반덤핑은 Sunset Review 끝에 2023년 4월 11일자로 조치 연장 결정되며, 2028년 4월 22일까지 5년간 추가 부과 예정. 더불어 고품수성 수지는 2023년 1월 26일자 반덤핑 최종 판정으로 모든 한국 제품에 대해 124% 관세 부과 결정

나. 외국인 투자 유치 가속

▣ 중동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 정책 발효 전망

- 2024년 1월, 중동지역본부 유치 정책 발효에 따른 투자 유입 효과 기대
 - 중동지역 내 2개 이상 법인 및 지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에 대해 사우디 내 중동 지역본부* 설립하지 않을 경우 정부 발주 프로젝트 참여 불가**
 - * 기존 운영하던 법인 또는 지사와 분리한 별도의 관리본부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 투자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미설립 기업 리스트 게시를 통해 관리 예정
 - 설립 기업에 대해 Saudization 면제 및 비자 제도 유연화 등 인센티브 지급 예정이며, 투자부(MISA) 내 별도 조직인 MIZA 편성 통해 설립 의향 기업 지원 전담 제도 운영
 - 실제 정책 발표 후 이미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이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257%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고, 2024년 이후 주요 프로젝트에의 추가적인 투자 유입 기대
 - 단, 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거나 불가피하게 지역본부 미설립 기업과 계약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5가지 예외조항* 발표
 - * (1) 계약금액이 100만 리알(약 27만 달러) 미만이거나 계약 이행지가 사우디 영외인 경우
 - (2) 기술적으로 수용 가능한 응찰이 미설립 기업뿐인 경우
 - (3) 미설립 기업의 응찰가격이 다른 기업 대비 25% 이상 낮은 경우
 - (4) 해당 계약 건 수행 가능한 기업이 미설립 기업뿐인 경우
 - (5) 공공안전, 보안, 보건 등 국가적 중차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 경제특별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 산업군 육성 목표

- 2023년 4월, 사우디 내 4개 지역에 대해 신규 경제특별구역(SEZ) 지정
 - 지역별 중점 개발 산업 및 인센티브 발표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가속화 목표
 - 리야드(중부), 자잔(남부), 라스 알카이르(동부), KAEC(서부)이며, 진출하는 산업별*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및 투자 인센티브** 지급 통해 의향 기업 진입장벽 최소화 목표
 - * 리야드(소비재, 바이오헬스, 항공부품, 귀금속, 컴퓨팅), 자잔(식품가공업, 금속, 물류), 라스 알카이르(조선 및 리그 플랫폼), KAEC(자동차, 소비재, ICT, 제약, 의료기술, 물류)
 - ** 최대 20년 법인세율 인하, SEZ 내 대기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Saudization 면제 등
- 세부 입주 조건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경제특별구역 도입을 통해 사우디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 또는 조립 후 GCC 등 제3국으로의 재수출 여건 개선

다. 국가 경제 성장동력 다각화 가속

▣ 고유가 지속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석유 부문, 신도시 프로젝트 포함한 다방면에서 프로젝트 진행 박차
 - NEOM, 기존 발표한 'The Line' 확장 발표 및 Oxagon, Trojena, ENOWA 등 세부 산업별 프로젝트 후속 발표
 - Red Sea, Amaala, Qiddiya 등 레저·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 추진
 - ARAMCO 복합화력발전소, 담수화 플랜트 등 일반 프로젝트성 발주 외에도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 생산공장 계약 등 빠른 속도로 추진
 - Riyadh Metro 시범 운영 및 개통 가시화, King Fahd Causeway 증축, 국내 철도망 확대 발표 등 교통망 개선 추진

▣ 관광, 문화, 예술, 스포츠산업 기반 마련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 국내 관광지 개발 및 관광 인프라 구축
 - 알 올라(Al Ula) : 헤그라 등 기존 유적지 중심으로 한 레저 인프라 구축 및 호텔, 식당 등 유치 목표
 - 디리야(Diriyah) :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디리야 전체 재건 작업*과 문화 예술학교, 레지던스, 식당 등 대규모 관광지구 구축 목표
 - * 지속 재건 작업 중이며, 2022년 11월부터 At-Turaif 및 Bujairi Terrace 부분 개방

- 타이프(Taif) 및 아브하(Abha) : 산악지대에서 할 수 있는 이색 레저산업 및 호텔, 식당, 교통 인프라 구축 목표
- 리야드 시즌 및 젯다 시즌 : 사우디 내 주요 도시에서의 관광 축제 정례화* 및 해당 개최지의 연중 개방** 통해 내수 소비 진작 기여
 - * 해당 시즌에 맞춰 콘서트, DJ 페스티벌, 전시회 등 개최
 - ** 비시즌에 Gamers 8(E-스포츠 축제)와 같은 다양한 행사 및 K-POP 콘서트 등 개최
- 축구 리그 및 골프 리그 활성화 통한 사우디 스포츠산업 관심 증대
 - 다수 주요 유럽 리그 선수 및 감독 영입을 통해 사우디 축구 리그 활성화 및 사우디에 대한 인식 환기
 - PIF 주도로 LIV 골프 인수 후, PGA 골프 인수하며 골프 리그 활성화
 - 국내 스포츠 리그 외, 2029 동계 아시안게임 및 2024 세계 펜싱 챔피언십, 2027 아시안컵, Formula 1 등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

라. 석유산업 의존도 약화 추진

▣ 사우디 국가 경제의 국제유가와 높은 연동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

- 코로나19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되며 국가 재정 변동성 악화
 - 2022년 말 이후 공급 확대 및 수요 안정화로 대폭 하락하며 국가 재정 적자 전환
→ 2023년 하반기 사우디를 필두로 OPEC+ 원유 일일 생산량 감산 조치와 함께 겨울철 수요 증대로 인한 국제유가 지속 인상
 - * 다만 사우디 국가 재정은 100만 배럴 이상 일일 생산량 감축 조치로 인해 긍정 영향 미미
 - 석유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간산업 육성 및 프로젝트 추진 중이나 국가 차원의 목표 달성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국제유가 유지가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일일 생산량 조절을 통해 국제유가 상방 압력 주입
 - * 현재 감산 조치는 2023년 연말까지로, 2024년 이후 수급 불균형 해소 시 유가 안정화 전망

▣ 에너지원 다변화 및 탈탄소 가속화로 석유산업 의존도 약화

- NREP(국가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통해 태양광·풍력발전 도입
 - VISION 2030 및 Net Zero 206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 발전 용량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 추진

- REPDO(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청), 복수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Sakaka 태양광 프로젝트 등 일부 발전 시행
- 새로운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 도입을 위한 경쟁입찰 진행
 - 사우디는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1,400MW급 가압경수로 2기를 짓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 발표했으며, 현재 한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 경쟁 중
 - 총 사업비가 약 14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후 추가 원자력발전소 발주 계획
- 블루수소 및 블루암모니아 등 수소산업 상업화 추진
 - 2022년 10월, SABIC 자회사인 SABIC Agri-Nutrients Co.가 TUV Rheinland로부터 세계 최초로 독자적인 블루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설비 인증 취득
 - * 37,800톤의 블루암모니아와 8,075톤의 블루수소 생산 가능 확인
 - * 2022년 12월, 25,000톤의 블루암모니아를 롯데정밀화학에 판매
 - ARAMCO는 2030년까지 총 1,100만 톤의 블루암모니아 생산 계획을 밝혔으며, 높은 가격으로 인해 판매처 확보가 어렵지만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 왕세자 중심의 국정 운영 공고화 및 국가 개혁 가속화
- ※ 경제 : 고유가 기저 및 경기 회복에 따른 재정 흑자 반전, 무역수지 대폭 개선
- ※ 산업 : 석유 부문 업·다운스트림 및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 재개
- ※ 정책 : VISION 2030 기반 ESG 경영 확립 추진

가. 정치 환경

▣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중심 국정 운영 및 국가 개혁 지속

- 2022년 9월, 국가수반 총리에 등극하며 지속적인 정권 장악
 - 2017년 6월, 제1의 왕위 계승자로 등극 이후 5년 만에 총리 등극
 - 국방장관과 총리를 겸임하며 왕실 수석 경제 개발 이사회 의장직 수행
 - 대대적인 부패 척결 개혁 조치를 단행하여 정권 안정성과 재정을 동시 확보
 - 부패 인사 체포 및 국가정책 개혁 통해 청년층 지지율 공고
- 주요 정책 결정 및 국가원수 역할 집중 심화
 - 2023년 개최된 국내외 정상급 회담 대부분에 참석 및 중대 사안 최종 결정
- VISION 2030 프로젝트 결정권자로서 국가 개혁 정책 주도
 - 국영기업 ARAMCO, SABIC 등을 통한 민간 투자 계획 추진
 - NEOM, Red Sea 등으로 대표되는 기가 프로젝트 주도적 추진
 - 非석유 부문 육성을 위한 제조업,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성장동력 다변화

▣ 역내 주요 이슈 및 정치 동향

- (중동사태) 직접적 영향 없으나 사태 종식 위해 역내 주도적 역할 수행
 - 이스라엘-하마스 간 발발한 중동사태 관련, 이스라엘 영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관계 정상화를 논의 중이었으나 미수교 상태로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직접적 교역이나 투자 없어 사태 영향력 미약
 - * 다만,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논의 중이던 관계 정상화는 중동사태 발발 후 중단
 - 사우디는 왕세자를 필두로 미국을 비롯 인접국, 아랍연맹, 이슬람협력기구 등 다양한 국가 및 기관과 사태 종식을 위해 주도적 역할 이행
 - 우리 기업의 경우, 이스라엘과 직접적 교역이 없고 진출한 생산공장들 역시 내수판매가 주력인 만큼 공급망, 물류, 수출 등 타격 없을 것으로 전망
 - * 단, 역내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 물류비 상승 등 간접적 영향 발생 가능

- (BRICS* 가입) 신규 회원국으로 사우디 포함 6개국 가입 결정
 -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 '23년 8월 BRICS 정상회담에서 사우디, 아르헨티나,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UAE를 신규 회원국으로 결정했으며, '24년 1월부터 합류 예정
 - 사우디는 BRICS 가입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전망
 - * 일대일로 및 VISION 2030 협력 강화
 - ** 산유국 협의체인 OPEC+ 공조 강화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집권 후 냉각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주요한 관계
 -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중동 개입의 피로도가 증대되며 중동에 대한 미국 정책 기조 변화
 - * 중동지역 재균형 정책 통해 직접 영향력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권역별로 대응책 마련
 -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전 행정부 대비 對사우디 비판적 태도로 관계 냉각
 -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및 원유 일일 생산량 증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OPEC+ 감산 결정으로 양 국 관계 긴장상태 지속
 - 2023년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 논의가 지속되며 관계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중동사태 발발로 인해 사우디-이스라엘 간 국교 정상화 논의는 중단되었으며 중동사태 안정화를 위한 협의 지속

- (중국) 최대 교역 관계에서 정치적·경제적 협업 관계로의 발전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자, 사우디의 최대 교역국으로 기존에는 교역 등 경제적인 활동에의 집중
 - 사우디의 비전 2030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협업을 계기로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협업을 넘어 전략적으로 긴밀한 동맹관계로 발전
 - * 중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 중 하나
 - 2023년 3월, 중국 중재로 베이징에서 사우디-이란 간 관계 정상화 합의가 성사되며 중동에서의 영향력 점진적 확대
 - 2023년 8월, 사우디가 BRICS 가입도 결정되며 중국과 사우디 간 양국 국가 정책에 대한 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이란) 전통적인 중동 맹주로, 역내 패권 경쟁국
 - 수니파 진영의 중심인 사우디와 달리, 이란은 시아파 진영의 중심
 - 2015~2016년 종교적, 정치적 사건으로 국교 단절 및 대립 구도 심화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집권 기간의 대이란 제재가 재개되고, 2019년 사우디 유조선 피습 사건 및 송유관 시설 공격 사건 등으로 사우디-이란 갈등 심화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양 국 관계 개선 위해 4차례 회동 시행
 - 2023년 8월, 7년 만에 사우디와 국교 정상화 합의

- (이스라엘) 주요 아랍국가와의 국교 정상화 및 협력 가속화
 -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미수교 상태이며, 공식적 외교관계 전무
 - 중동 전쟁 당시 팔레스타인 문제로 인해 아랍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최근 對이란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며 부분적인 군사적 협력
 - 2020년 9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이스라엘·UAE·바레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 통해 국교 정상화 및 협력 가속화 추진
 - * 2020년 9월 15일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UAE, 바레인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협정을 의미하며, 동 협정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걸프지역 아랍국가(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와의 수교는 72년 만의 첫 수교 기록
 - 2023년, 미국 중재로 아브라함 협정에 이어 사우디와도 국교 정상화 논의 중이었으나 중동사태 발발 이후 논의 중단

나. 경제 환경

▣ 경제성장률

- IMF는 2024년 사우디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
 - 2022년 국제유가 급등 후 고유가 기저가 유지되면서 국가 재정 수입 대폭 증대 및 내수경기 활성화 덕분에 8.7%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3년 글로벌 경기 위축 및 국제유가 안정화 등으로 3.1% 성장이 예측되며 2024년도 유지 전망
 - 2023년 상반기까지 국제유가가 하향세를 기록하며 2024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낮게 예측되었으나, 2023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수급 불균형 및 일일 생산량 감축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3.10%로 상향 조정 발표

〈2020~24년 사우디 경제성장률 동향〉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4.30	3.90	8.70	3.10	3.10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자료: IMF

▣ 재정수지

-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일 생산량 감축으로 국가 재정 적자 전환
 - 고유가에 힘입어 2022년 1분기, 6년 만에 분기 재정 흑자
 - 2023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가 재정 적자 전환
 - 2023년 하반기 국제유가 지속 인상되며 2022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일일 생산량 100만 배럴 이상 감축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 재정예의 영향력 부족

다. 산업 환경

▣ 원유산업

- (매장량) 세계적인 원유 생산국으로서 석유 확인 매장량 최상위권 국가
 - OPEC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사우디의 석유 확인 매장량은 2,672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21.5% 보유
 - * 베네수엘라(3,035억 배럴)에 이어 2위 기록

- (일산량) 2022년 1,214만 배럴, 세계 일일 생산량 비중 12.9%
 - 2022년 일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미국(1,777만 배럴)에 이어 2위 기록
 - 코로나19 여파에서 회복되며 경제 활성화로 인한 세계적인 석유 수요가 회복세이며, 특히 항공 및 운수업에서의 수요 증가에 기여
 - 중동지역 생산량이 3,074만 배럴(전체 32.8%)로 권역별 생산량 1위
- (원유 수출) 2022년 일일 원유 733만 배럴 수출, 세계 원유 수출 17.1% 차지
 - 2022년 일일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며 전 세계 1위 유지
 - 중동지역 수출량이 1,830만 배럴(전체 42.8%)로 권역별 생산량 1위

▣ 석유화학 및 제조산업

- (정부 주도) 국영석유회사 ARAMCO 주도 석유화학산업 투자 확대 지속
 - Saudi Vision 2030 일환으로 단순 원유 수출 경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제조업 적극 육성
 - 2020년 SABIC 인수 후, 자회사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다운스트림사업 강화로 영업이익 대폭 신장
 - * 2022년 말 기준, EBIT는 전년 동기 대비 127.5% 성장(211.5억 달러)
- (합작투자) 글로벌 제조기업과의 합작투자로 현지 생산공장 설립 추진
 - ARAMCO, DUSSUR 등 주요 국영기업 및 투자공사를 필두로 제조업 분야 기반 확립을 위해 글로벌 제조기업과의 현지 생산공장 설립 계약 체결 가속화
 - * (ARAMCO-DUSSUR) 선박엔진공장, 주단조공장
 - * (DUSSUR) 스테인리스 무게목 강관/튜브공장, 터빈공장, 화학공장
 - * (ARAMCO) 석유화학공장, 정제공장

▣ 프로젝트

- Saudi Vision 2030 일환으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 중점 추진
 - NEOM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Red Sea 관광단지, Qiddiya 엔터테인먼트 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 한미글로벌, NEOM의 The Line 프로젝트 PMO 용역 수주
 - * 삼성물산-현대건설, NEOM의 The Line 러닝 터널 공사 수주

- 자국민 주택보유율 목표 달성을 위해 ROSHN 주축으로 주거단지 공급을 위한 공공·민간 차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추진
 - * 리야드를 비롯한 동부(Hofuf), 서부(Madinah, Makkah) 등 지역별 주택단지 공급 지속
- 의료, IP 특화산업도시 개발 및 지하철·철도 등 교통망 구축 프로젝트 추진
 - * 사우디 철도청(SAR) 통해 Landbridge 프로젝트 추진(동부~서부 철도망)
 - * 사우디~바레인 고속도로(Causeway) 증축 추진
 - * 리야드 메트로 시범 운행 및 메트로 연계 버스 시스템 확장 운행 중
 - * Medical City 및 IP specialized City 등 계획 수립

■ 관광·문화산업

- 관광·문화산업 육성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및 정부 주도로 적극 추진
 - (게임) 2022년 9월 National Gaming and E-Sports Strategy 통해 86개의 세부 이니셔티브 시행 및 2030년까지 GDP에 500억 리얄(134억 달러) 기여 및 일자리 39,000개 창출 목표 발표
 - 왕세자의 게임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 바탕으로, PIF 주도로 주요 게임회사 투자 및 게임·E-스포츠 관련 제도 및 문화 구축
 - * 2017년 E-스포츠연맹 발족, 2018년 프로리그 창단, 2019년 컵 대회 신설 등
 - 2022년 및 2023년 “Gamers 8” E-Sports 행사 개최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 게임 플레이어 초청 및 대회 진행 등 국내외 팬들의 관심 집중
 - * 행사장 내 뮤직 페스티벌 개최와 일본관 및 한국관을 구축하여 콘텐츠 다변화
 - (관광) 2022년 6월 사우디 관광청 로드쇼 통해 2030년까지 사우디의 국내외 방문 횟수 1억 건 달성 및 역내 GDP에의 기여 비율 10% 확장 목표 발표
 - 코로나19 이후 리야드 시즌, 젯다 시즌 등 연례 관광축제 재개 및 2029 동계 아시안게임 유치(Trojena), 관광축제 연계 예술 및 문화공연 개최 등 단순 관광 및 문화산업이 아닌 항공·예술·공연 등 연계산업까지 육성 전망
 - 알 울라(Al Ula), 디리야(Diriyah) 등 대표 관광지에 대해 인프라 확충 및 개발을 통한 관광지구 구축 계획

〈각 국 주요 세제〉

국가명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VAT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세율	비고
사우디*	20.0%	천연가스 투자 활동(30%), 오일탄화수소 생산(85%)	없음		0~15%	배당금(5%), 이자(5%), 매니지먼트 서비스(20%), 로열티(15%), 기타(15%)	15%	VAT 예외 해당하는 금융 서비스, 부동산임대, 자본재 판매 등 예외
바레인	46.0%	석유화학 계열만 부과	3%	별도 소득세 없으며, 대신 사회보장기여금 명목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3%, 바레인 근로자는 12% 부과	없음		10%	기존 5%에서 2022.12.31부로 인상
예멘	20.0%	휴대폰회사 (50%), 오일 가스업종 (35%), 국제 통신회사 (35%)	10~20%	거주자는 10~15%, 비거주자는 20%	0~10%	중앙은행 미승인기관 이자(10%), 비거주자에 대해 로열티 (10%), 커미션(10%), 기타(4%, 10%)	5%~10%	통신, 모바일 (10%) 분야를 제외하고 5%

주: 로컬기업은 법인세 대신 종교세(Zakat) 2.5% 부과

자료: 사우디 관세청, Tamimi, Deloitte, pwc, Global Expansion 및 무역관 조사 종합

〈진출 및 비즈니스 여건〉

국가명	법인설립 요건(투자비율)		최소자본금 (천달러)		현지인 고용의무		기타 참고사항
	대표	에이전트쉽	금액	적용분야	적용여부 (명칭)	분야	
사우디	100% 가능	X	0 ~ 53,333	하단 참조	O (Saudization)	하단 참조	

자료: 사우디 투자부, Tamimi, pwc 및 무역관 조사 종합

▣ (사우디) 투자진출 관련 기타 참고사항

- 외국인 100% 지분 투자 가능하나, 일부 제한 업종 존재
 - 현지인 최소지분 필요 분야 : 통신(40%), 보험 및 재보험(40%), 부동산 금융(40%), 건설프로젝트 관리(25%), 시내 대중교통(30%), 도시간 대중교통(20%)
 - 외국인 진출제한 분야 : 원유 탐사·시추·생산, 군사장비·군복제조, 군부대 식품납품, 메카 및 메디나 부동산투자, 응급서비스 등

- 최소자본금 규정은 단독투자·합작투자 여부, 업종별 상이
 - 일반 상업분야 단독투자/합작투자 : 800만 달러/711만 달러
 - 부동산 금융 : 5,333만 달러
 - 대중교통 : 13만 달러
 - 그 외 분야* : 13만 달러
 - * 투자 라이선스 취득 시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주식회사/LLC/지사 등 설립 시 최소자본금 필요

- Saudization은 사우디인 고용 장려 제도로 채용비율에 따라 서비스 차등 제공
 - 사업별 유형에 따른 사우디인 최소 채용인원 충족 필요
 - * 산업군 및 인원 규모 등 조건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 별도 확인 필요(노동사회개발부, MHRSD)
 - 전체 근로자 중 사우디인 채용 비율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로 혜택 및 불이익 부여 통해 사우디인 채용 장려
 - * Platinum, High Green, Medium Green, Low Green, Red
 - ** Low Green 이하로는 서비스 제한이 들어가며, Red 등급은 사실상 규모 확장·변경 등 지원 불가

라. 정책·규제 환경

▣ Saudi Vision 2030

-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6년에 발표한 중장기 국가 경제 개조 계획
 - 석유에 편중된 국가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제조업 등 지속가능한 산업을 육성하여 탈석유화 및 탈탄소화 시대에 맞는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 확보

- 프로젝트 지속 추진을 위한 국가 재정 안정화 필요
 - 2022년 재정 균형 달성했으나, 2023년 적자 전환하는 등 정상화 노력 필요
 - 메가 프로젝트 달성 위한 하부 프로젝트 발표 및 추진
 - * NEOM의 The Line, Oxagon, ENOWA, Trojena 등 부문별 세부 프로젝트 발표
- (ESG) 지속가능한 개발 표방하여 이니셔티브·정책 통한 장려
 - (환경) 그린 이니셔티브, 폐기물 관리 국가전략 발표 통해 탄소 배출 절감 및 기후 변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 수립
 - * 해양 생태계 보존 위해 글로벌 해양연합 가입 및 연구개발 지속
 - *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및 환경주간 지정 통해 리야드 내 수목사업 추진, 환경오염 방지 캠페인 추진 등 지속가능한 환경 도모
 - (사회) 여성의 사회참여 허용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사회참여 증대
 - * 2022년 4분기 기준, 사우디 여성 실업률은 기존 3년 대비 대폭 축소(15.4%)
 - ** S&P에 따르면 사우디의 노동시장 개혁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2016년 19%에서 2022년 약 36%로 증가했고 국가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 (거버넌스) 지역본부 유치 정책을 통해 사우디 진출 기업의 지배구조 안정화 추진 및 대대적인 반부패 척결을 통해 기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노력
 - 기업 차원에서는 PIF(국부펀드), ARAMCO, SABIC, SEC(전력청)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필두로 내부 ESG 프레임워크 구축 추진 중이며, 사우디 주식시장 운영 주체인 Tadawul Group에서도 사우디 기획경제부 및 자본시장청과 MOU 체결 통해 그룹 내 ESG 프레임워크 구축 예정
 - ARAMCO(아람코) ESG 경영 도입 사례
 - [환경] 자회사인 SATORP 통해 MENA(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ISCC+(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 인증을 취득한 순환 폴리머 생산. 다른 자회사인 SASREP와 SABIC Agri-Nutrient를 통해 세계 최초로 블루암모니아와 블루수소 생산에 대한 인증 취득
 - [사회] 현지화 프로그램인 IKTVA Program 통해 약 90개 사우디 제조사와 계약을 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추진 및 안전관리 시스템(SMS) 도입 통해 경영진과 직원 및 계약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도입
 - [거버넌스] SSC(Sustainability Steering Committee)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 목표 설정 및 감사회 통해 재정보고서 발간, 재정 상태 보고 등 재무 관련 업무 총괄 처리

- SABIC(사빅) ESG 경영 도입 사례
 - [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성 제고, 수자원 효율성 증가, 산업폐기물 재활용 등 각 분야별 전략 수립 및 수행
 - [사회] 다양한 Global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46년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Together for Sustainability(TfS) 가입
 - [거버넌스] Sustainability Council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전 제시, 관련 지표 성과 점검, 목표 설정 등 총괄 관리
- SEC(전력청) ESG 경영 도입 사례
 - [환경] 폐기물 관리부터 현장 폐기, 원상 복구 등 전 단계에 대해 21개 절차 수립 및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관리 효율성 전년 대비 68% 증가
 - [사회] 지역사회에의 투자 및 기부 통해 상생 도모. 신규 직원 채용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인적자산 확장에도 기여
 - [거버넌스] 2022년 ESG 전담부서 설립 및 ESG 전략 수립 통해 회사와 지역사회 및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목표 설정 등 관리

▣ 수입 규제

- 2023년 9월 기준 GCC의 對한국 수입 규제는 전체 2건
 - 2023년 4월, 반덤핑 부과 기간 종료 후 Sunset Review 중이던 납축전지에 대해 반덤핑 부과 연장이 결정되어 2028년 4월까지로 수입 규제 연장
 - 2023년 1월, 반덤핑 조사 중이던 고흡수성 수지가 최종 반덤핑 판정을 받아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124% 부과

〈對한국 수입 규제 현황〉

품목명	구분	내용	진행 현황
납축전지 (Automotive batteries)	HS Code	8507.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12. 31 : 조사 개시 ○ 2016. 12. 31 : 최종 판정 ○ 2017. 06. 25 :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방전지 : 19%, 아트라스비엑스 : 21% - 동아타이어 : 25%, 현대성우 : 12%, 기타 : 25% ○ 2022. 03. 23 : Sunset Review 개시 ○ 2023. 04. 11 : 최종 판정 및 부과 연장 개시
	유형	반덤핑	
	품목 분류	전기전자	
고흡수성 수지 (Super Absorbent Polymers)	HS Code	3906.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11. 04 : 조사 개시 ○ 2023. 01. 16 : 최종 판정 ○ 2023. 01. 26 : 반덤핑 관세 5년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제품 : 124%
	유형	반덤핑	
	품목 분류	플라스틱/고무	

자료: WTO 통계, 현지 관보 등 종합

- ※ 시장 특성 :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강력한 국가 개혁 추진
- ※ 무역 : 석유의 무역규모·수지 등 영향력 높으나 非석유 부문 영역 확장
- ※ 투자 : 정부의 투자 유치 매우 높으나 열악한 환경 및 제도로 애로사항 잔존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국가 경제 성장동력 다변화 및 인프라 확충 의지에 따른 수요 증가

- 국가 산업 전략(National Strategy for Industry) 통해 산업 기반 육성 추진
 - Vision 2030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단위의 새로운 산업 전략으로 총 규모 1조 리얄(2,667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 발굴 예정
 - * 왕국의 산업 경제를 12개로 세분화·다각화하여 총 800개 이상의 투자 기회 발굴 목표
 - 동 목표를 통해 해당 산업의 국내 생산을 3배로 확장하고, 수출 규모는 2배까지 증대시켜 2030년까지 5,570억 리얄(1,485억 달러) 달성 목표
 - 또한 해당 섹터로 1.3조 리얄(3,46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을 6배 증가시키고, 수만 개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목표
-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NEOM) The Line, Oxagon, ENOWA, Trojena 등 세부 프로젝트와 에너지 발전계획 등 구체화하고 있으며, 완공 시 북부지역과 홍해를 잇는 대규모 도시 인프라 구축 목표
 - (RED SEA) 관광산업 육성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홍해 연안 따라 호텔, 주거 단지, 공항 등 복합관광단지 건설 통해 레저 인프라 구축 목표
 - (Qiddiya) 수도인 리야드 시외에 구축 중인 왕국 최대의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집중지구 개발 프로젝트로 엔터테인먼트 인프라 구축 목표
 - (Land Bridge Project) 왕국 내 주요 도시 및 신도시 간 연결성 확보 및 왕국 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규모 철도망 구축 프로젝트
 - * 서부지역은 Haramain 고속철도망 구축하여 젓다국제공항-메카-메디나-KAEC 등 주요 서부지역 연결 이용 중
 - (Riyadh Metro)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리야드 내 이동성 향상을 위한 지하철망 구축 프로젝트로 현재 시범 운행 중

▣ 세계 최대 에너지 자원 보유 및 생산, 수출

- (원유) 사우디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22년 기준 1,214만 배럴, 세계 총 생산량의 12.9%를 차지하는 세계 2위 원유 생산국
 - 2021년 매장량 2,672억 배럴로 세계 매장량의 21.2%를 보유한 2위 산유국
 - * 매장량 기준 1위는 베네수엘라로 3,035억 배럴, 세계 매장량의 24.1% 차지
 - * 베네수엘라는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원유 시추가 어려워 사우디가 실질적인 1위 산유국
 - 일일 생산량은 1,214만 배럴로 세계 2위이며, 하루 평균 733만 배럴 수출

- (천연가스) 사우디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22년 기준 120.4 bcm(Billion Cubic Meters)으로 세계 총 생산량의 3.0% 차지하는 세계 9위 천연가스 생산국
 - * 미국(978.6 bcm), 러시아(618.4 bcm), 이란(259.4 bcm), 중국(221.8 bcm), 캐나다(185.0 bcm), 카타르(178.4 bcm), 호주(152.8 bcm), 노르웨이(122.8 bcm)가 1~8위 차지
 - 다만 국내 생산량 전량을 소비하고 있어 원유처럼 변동성 영향 매우 극소

- 국제유가 등락에 따라 국가 재정수지가 변동되며, 이에 대한 헷지 수단 미흡
 - 2020년 코로나19 유행 및 글로벌 경기 불황과 함께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부분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 국가 경제가 급속히 냉각
 - 2022년 국제유가 급등 및 고유가 기저가 지속되면서 1분기에 6년 만에 첫 재정 흑자 달성하며 중단 프로젝트 재개 및 신규 프로젝트 추가 발주
 - 이러한 현상을 예방코자 非석유 부문 육성 및 재정 수입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불안정성이 존재하여 사우디 경제에 가장 큰 기회요인이자 리스크로 존재

나. 교역

▣ 교역 규모

- 석유 분야 수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 2021~2022년 경기·유가 회복과 함께 교역 규모 및 무역수지가 높은 수준으로 회복
 - 2023년의 경우, 연초 국제유가 급락과 함께 상반기 수출액이 23.7%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13.5%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 감소

〈2020~23H 사우디 대외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교역	311,851	▲24.8	429,028	37.6	601,061	40.1	261,302	▲12.9
수출	173,854	▲33.5	276,179	58.9	411,184	48.9	161,857	▲23.7
수입	137,998	▲9.9	152,849	10.8	189,877	24.2	99,445	13.5
수지	35,856	▲66.9	123,330	244.0	221,307	79.4	62,412	▲49.9

자료: 사우디 통계청(GASTAT)

▣ 수출

- 2023년 상반기 기준 국가별 수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며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미국 등이 주요 수출국
 - 2023년 상반기 사우디 총 수출액은 1,618억 5,700만 달러이며, 전년 동기 대비 23.7% 감소했는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
 - 한국은 사우디의 4대 수출국으로 수출 비중 약 8.7%를 차지
 - 유가가 3분기 이후 지속 인상하며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사우디 정부에서 연말까지 100만 배럴 추가 감산 조치를 연장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수출 측면에서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2022~23.1H 사우디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22	2023 상반기(1H)		
		수출액	수출액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비중
수출 총액		411,184	161,857	▲23.7	100.0
1	중국	66,647	26,821	▲18.9	16.6
2	일본	40,771	15,731	▲23.1	9.7
3	인도	41,917	15,291	▲32.7	9.4
4	한국	37,909	14,058	▲27.2	8.7
5	미국	23,231	8,494	▲35.2	5.2
6	UAE	17,809	8,156	▲19.1	5.0
7	싱가포르	9,956	4,187	▲24.2	2.6
8	바레인	9,871	4,114	▲25.9	2.5
9	대만	10,433	3,953	▲30.2	2.4
10	이집트	13,790	3,769	▲53.2	2.3
10대 국가 소계		272,333	104,574	▲27.1	64.6
기타 국가		138,851	57,283	▲16.6	35.4

자료: 사우디 통계청(GASTAT)

- 광물성 연료가 전체 수출의 약 78%로 2022년 상반기 대비 감소
 - 2022년 광물성 연료가 전체의 79.9%를 차지하는 등 고유가 기저에 따라 비중이 높아졌으나, 2023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비중 조정 반영

〈2022~23.1H 사우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	2023 상반기		
	수출액	수출액	증감률(%)	수출 비중(%)
수출 총액	411,184	161,857	▲23.7	100.0
광물성 연료	328,456	126,817	▲24.9	78.4
석유화학제품	30,168	10,778	▲29.1	6.7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23,861	8,559	▲34.3	5.3
금속제품	7,792	3,954	▲7.8	2.4
수송장비 및 부품	5,836	3,049	▲2.2	1.9
기타	15,071	8,700	14.1	5.3


자료: 사우디 통계청(GASTAT)

- (공급망) 부탄다이올 3순위 무역관으로 정기 모니터링 진행
 - 사우디 내 유일하게 한 개 기업(SipChem 계열사인 IDC)이 부탄다이올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럽 및 인도 등 기존 거래선으로 수출 중인 상황
 - * 연간 약 6.2만 톤 생산 및 수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사우디 내 수요 없음)
 - ** 수량 및 가격 등은 직접거래 당사자에게만 공개 가능하다고 하여 확인 불가
 - 현지 진출 한국 기업 역시 부탄다이올을 취급하거나 연관된 기업이 없어 공관 및 지상사와 정보 교류 통해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진행

▣ 비관세장벽

- 관세 및 부가세 인상, 자의적 통관 기준 적용 등의 수입장벽 존재
 - 2020년 6월 관세 인상 및 부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후 2022년 6월 추가적으로 99개 품목에 대해 0.5~15% 수준의 관세 기습 인상
 - 관세 인상 또는 기업 업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규정 변경 또는 새로운 규정 등이 아랍어 발표 후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행정 처리에 대한 불투명성 잔존
 - 세관 담당자에 따른 통관서류 적용 기준이 다른 경우가 수시로 발생
 - 수입 규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반덤핑 2건 규제 중

〈수출 및 진출시 필요 주요 인증〉

국가	인증명(인증기관)	분야(HS코드)	인증마크	주요사항
사우디	SASO(Saudi Standards Metrology & Quality Organization)	SFDA 등록대상 제외 전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시기 : 2006년 5월 • 인증절차 : 제품정보 등록→인증기관 선정 →PCoC수수료 지급→서류 확인 및 보완 →SABER플랫폼 인증 등록→PCoC 발급 • 인증소요비용 : 50~95만원 • 국내 지원기관 등 : 하단참조
	SFDA(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식품 및 농산품, 의약품 및 화장품, 의료기기 및 의료 기기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시기 : 2008년 12월 • 인증절차 : 수권대리인(AR) 발굴→회사정보, 제품정보, 인증정보 공유→AR이 SFDA MDMR 시스템 및 MDMA 시스템 제품 등록→SFDA 승인 • 인증소요비용 : 품목별 제품 분류에 따라 상이

자료: 사우디 표준청(SASO), 식약청(SFDA)

▣ SASO 인증 관련 기술표준원 공인시험기관

- 한국인정기구(KOLAS) 통해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
 - 다른 지역 및 구가에서 시험한 결과 상호 인정 목적으로 수립된 제도
 - 국내에는 TUV SUD,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한국인터텍테스팅 서비스, FITI시험연구원 등 있으며, KOLAS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인정분야별 공인시험기관 확인 가능

다. 투자

▣ 對사우디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2022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59.6% 감소
 - 다만, 2021년의 경우 2분기에 글로벌 투자 컨소시엄이 AOPC(Aramco Oil Pipelines Company) 지분 49%를 취득하며 총액 124억 달러를 기록하여 해당 실적을 제외할 경우 14.7% 증가

〈2018~22년 對사우디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단위: 십억 달러)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외국인 직접투자	4.2	4.6	5.4	19.3	7.8

자료: Invest Saudi

▣ 한국의 對사우디 투자 동향

- 2022년 對사우디 투자는 1억 800만 달러로 4년 만에 회복세
 - 최근 현지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에 따라 투자 진출 2배 증가
 - 산업별로는 과거 건설업 일변도에서 최근에는 제조업과 금융,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 추세

〈2013~2022년 한국의 對사우디 투자 동향〉

연도	투자 신고 (건)	신규 법인 (개)	신고금액 (백만 달러)	투자금액 (백만 달러)
2013	73	11	339	260
2014	54	10	864	919
2015	55	10	1,462	1,380
2016	50	1	872	920
2017	47	9	419	407
2018	37	3	783	739
2019	30	4	181	171
2020	32	6	102	69
2021	20	4	120	51
2022	33	7	111	108
누계*	890	264	5,816	5,423

주: 누계 실적은 1968~2022년 누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사우디 지역본부 유치(Regional Head Quarter, RHQ) 정책 동향
 - 포스트 오일 시대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제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장려 목적으로 발표한 정책이며, 사우디 내 중동지역본부가 없는 기업은 2024년부터 정부 발주 프로젝트 참여 불가 천명
 - 2021년 1월 최초 발표 당시 24개 글로벌 기업이 RHQ 이전에 MOU를 체결했으며, 이후 2023년 초 약 120개 글로벌 기업이 RHQ 라이선스 발급
 - 지역본부 설립을 위해서는 본사가 위치한 국가와 사우디 외 최소 2개 이상의 국가에 자회사 또는 지사 운영이 필요하며, 사우디 내에서도 지역본부는 전략 제시 및 권역 관할의 역할만 가능하며 별도 법인 또는 지사를 통한 상업적 행위가 가능토록 명시
 - 2023년 1월, 동 정책의 예외 조항에 대해 발표했으며, 해당 발표를 통해 정책 발효 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재명시

-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Nitaqat) 및 의무 고용 강화 정책 동향
 -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 주도로 자국민 의무 고용 장려 정책인 Nitaqat 비율 지속 조정
 - * Low-Green, Red 등급의 경우, 신규 채용을 위한 비자 신청이 불가하고 근로자 이전이 제한되는 등 기업 운영에 제한 존재

〈주요 산업별·등급별 Nitaqat 적용 기준〉

(단위: %)

주요 산업분류	등급				
	Red	Low Green	Medium Green	High Green	Platinum
Hydrocarbons and their Processing	<3.62	>=3.62	>=18.00	>=21.00	>=23.00
Manufacturing	<17.08	>=17.08	>=23.87	>=25.47	>=32.87
Operations & Maintenance	<17.62	>=17.62	>=21.12	>=26.96	>=31.09
Retail & Wholesale	<24.25	>=24.25	>=28.72	>=32.91	>=40.91
Accommodation, Leisure, Tourism	<26.10	>=26.10	>=32.52	>=37.90	>=44.02
IT Solutions	<26.76	>=26.76	>=32.54	>=41.02	>=48.15
Construction & Cleaning	<12.17	>=12.17	>=14.17	>=17.00	>=22.00
Air and Sea Transportation	<27.57	>=27.57	>=40.98	>=50.38	>=57.29
Business Services	<33.28	>=33.28	>=42.12	>=47.12	>=57.82

자료: 사우디 인력사회개발부(HRSD). 2023년 9월 현재 인력사회개발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준

- Nitaqat와 별도로 일부 직종에 대해 의무 고용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대상 산업군을 발표하고 이를 확장하는 추세
 - * 엔지니어 직종(20%), 특수 고객서비스 업종(70~100%), 컨설팅 분야(35%) 등

▣ 투자 진출 진입장벽

- 복잡한 투자·청산 절차 및 정책 변경 과정의 불확실성이 잔존하여 잠재적 리스크
 -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명확한 설명 없이 투자 승인이 거부되거나 규제 및 법령/제도 변경 등의 공지가 아랍어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다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친절한 환경

- 충분한 사전 예고나 준비 기간 없이 수입관세 인상, 부가세 인상, GCC 국가 내 조건부 수입관세 적용 등 정책 변경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이나 계도기간이 없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사례 발생
- 부실한 투자 인센티브 및 과도한 법인세로 인한 어려운 기업환경
 - 두바이 등 주변국 대비 투자 인센티브가 열악하여 실질적 지원책 확인하기 어려움
 - * 지역본부 정책(RHQ) 및 경제특별구역(SEZ) 등 발표를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인센티브 지급 의사를 표명했으나 세부내용 발표가 지연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확인 필요
 - 사우디 국세 당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간주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등 세제 문제 발생
- 불투명한 노동시장과 사우디인 의무고용제로 인한 기업 유·무형적 비용 증가
 -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있으나 우수한 사우디 인력 발굴에 어려움
 - 사우디인 의무고용제 비율 강화로 제3국 인력 대비 높은 비용 지출

〈주요 산업단지 및 프리존, 스타트업 지원기관〉

국가	단지명	구분	규모	주요사항
사우디	리아드 1~3 산업공단	산업단지 (운영기관 : MODON)	20,500,000sqm	1. 위치 : Dry Port 부근 및 남동부 2. 비고 - (1공단) Dry Port 2km, 공항 36km, 기차역 2km - (2공단) Dry Port 24km, 공항 52km, 기차역 24km - (3공단) Dry Port 37km, 공항 77km, 기차역 37km
	젯다 1~3 산업공단		44,000,000sqm	1. 위치 : 젯다 남동부 및 남부 2. 비고 - (1공단) 젯다항 13km, 공항 45km, 기차역 15km - (2공단) 젯다항 64km, 공항 77km, 기차역 45km - (3공단) 젯다항 62km, 공항 77km, 기차역 45km
	담맘 1~3 산업공단		37,440,000sqm	1. 위치 : 담맘 남동부 및 다란 서부/남부 2. 비고 - (1공단) 담맘항 12km, 공항 44km, 기차역 5km - (2공단) 담맘항 40km, 공항 55km, 기차역 32km - (3공단) 담맘항 80km, 공항 91km, 기차역 70km
	클라우드 컴퓨팅 SEZ	특별경제구역(SEZ) (운영기관 : ECZA)	-	1. 위치 : 리아드 2. 투자유치 : MS, Oracle 3. 특화산업군 : IT, 항공물류 연계
	라스 알 카이르 SEZ		200,000sqm	1. 위치 : 동북부 (담맘 북부 약 200km) 2. 투자유치 : IMI, MCDERMOTT, MAKEEN, BAOSTEEL 등 3. 특화산업군 : 조선 및 리그플랫폼
	KAEZ SEZ		600,000sqm	1. 위치 : 메카 2. 투자유치 : LUCID, CEER, Himmah, SIAC 등 3. 특화산업 : 자동차, 의료기술, 물류, 소비재 등
	자잔 SEZ		246,000sqm	1. 위치 : 자잔(사우디 남부) 2. 투자유치 : Mashareq, Bestoo 등 3. 특화산업 : 식품가공업, 물류

자료: MODON, ECZA

▣ 리야드, 젯다, 담맘 등 주요 도시 산업공단 외 21개 공단 운영 및 개발 중

▣ 사우디 특별경제구역 입주혜택 및 기대효과

- 4개 특별경제구역 통해 각 SEZ별 투자인센티브 제공
 - 20년 간 법인세 5%로 인하, 원천징수세 영구 면제, SEZ 내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SEZ 간 거래 및 이동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최초 5년 간 사우디인 의무 고용 면제 등

라. 프로젝트

〈중동지역 내 주요 프로젝트〉

국가	분야	지역	규모(금액)	진행상황
사우디	조선	동부 (라스 알카이르)	45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명 : International Maritime Indust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장 부두(9km 길이) 종합 조선산업단지 -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참여(20%) • 2017년 착공하여 2024년 완공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획대비 2년 연장 • 완공 후, Bahri항 5년 간 VLCC 14척 건조예정 • 조선소 외, 선박엔진공장 프로젝트(Makeen) 동시 진행 중이며, 2024년 말 상업운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중공업 합작회사 참여(30%)
사우디	원전	-	2,800MW (200억 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1,400MW 규모 원전 2기 건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on 2030 일환으로 원전 활용을 통한 전력 충당 - 현재 전력 생산의 90% 화석연료에 의존 중 • 원자력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지주회사 설립 계획('22.3월) • 예비사업자 선정('18년) 후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4개국에 입찰제안요청서(RFQ) 발급('22년)
사우디	수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명 : 그린·블루 암모니아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부펀드, 아람코, ACWA power 주도로 3건의 개발 프로젝트 검토 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부펀드 그린 암모니아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 사업비 65억 달러로, 서부 안부 - 생산목표 : 연간 그린 암모니아 120만 톤 (2) 아람코 블루 암모니아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 사업비 155억 달러로, 북동부 라스 알카이르 - 생산목표 : 연간 블루 암모니아 1,000만 톤 (3) ACWA power 그린 암모니아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 사업비 130억 달러로 서부 젯다 - 생산목표 : 연간 그린 암모니아 300만 톤

자료: IMI, NEOM 및 Saudi Gazette, Arab News 등 현지언론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한-사우디 교역 동향

-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액 및 총 교역액이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개선
 - 연초 글로벌 원유 수급 안정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며 2023년 1~8월 한국의 對사우디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한 249억 달러 기록
 - 수입액이 크게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증가세를 보이며 무역수지 개선

〈2020~23년 한-사우디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20		2021		2022		2023.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교역	19,282	▲24.5	27,596	43.1	46,505	68.5	24,866	▲20.9
수출	3,302	▲10.7	3,325	0.7	4,865	46.3	3,618	20.3
수입	15,980	▲26.8	24,271	51.9	41,640	71.6	21,248	▲25.2
수지	▲12,678	30.1	▲20,946	▲65.2	▲36,775	▲75.6	▲17,630	30.6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022.1~8월 대비)
 자료: KITA

- 국제유가 하락 및 수출액 증대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폭 개선
 - 국내 전체 원유 수입 중 30%가 사우디산으로, 對사우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전체에서 가장 큰 수준일 만큼 국제유가에 따른 영향 지대

〈2023년 1~8월 한국의 상위 10대 교역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수출액	수입액	총 교역액	무역수지
1	중국	80,601	96,181	176,782	▲15,580
2	미국	73,324	47,425	120,749	25,899
3	베트남	34,176	17,315	51,491	16,861
4	일본	18,977	32,275	51,252	▲13,298
5	호주	11,282	22,436	33,718	▲11,154
6	대만	12,465	16,229	28,694	▲3,764
7	사우디아라비아	3,618	21,248	24,866	▲17,630
8	독일	7,052	16,053	23,105	▲9,001
9	싱가포르	11,258	7,837	19,095	3,421
10	말레이시아	6,110	10,201	16,311	▲4,091

자료: KITA

▣ 한-사우디 수출 동향

-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액이 회복세로 시장 확대
 - 2023년 1~8월 수출액 또한 36억 1,800만 달러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3% 증가

〈2019~2023년 1~8월 한국의 對사우디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1~8월
수출액	3,697	3,302	3,325	4,865	3,618
증감률	▲6.5	▲10.7	0.7	46.3	20.3

자료: KITA

-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주요 품목 전체가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 견인
 - 한국의 對사우디 수출 1위 품목인 수송기계(자동차 등)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며 11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기기기, 무기류 등도 세 자릿수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액에 기여
 - 석유화학제품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 하락한 1억 9,800만 달러 기록

〈2023년 1~8월 한국의 對사우디 수출 상위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구분 (MTI 2단위)	금액	증감률
수출 총계		3,618	20.3
1	수송기계(74)	1,172	9.1
2	전기기기(84)	337	95.1
3	철강제품(61)	296	19.0
4	무기류(97)	279	93.4
5	산업기계(72)	277	19.2
6	기초산업기계(71)	275	60.4
7	석유화학제품(21)	198	▲27.6
8	고무제품(32)	125	22.2
9	직물(43)	78	32.8
10	전자부품(83)	76	15.6

자료: KITA

▣ 한-사우디 수입 동향

- 국제유가 하락으로 2023년 對사우디 수입액은 전년 대비 25.2% 하락
 - 한국의 對사우디 수입의 원유, 나프타 등 광물성 연료 비중 유지

〈2019~2023년 1~8월 한국의 對사우디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1~8월
수입액	21,841	15,980	24,271	41,640	21,248
증감률	▲17.1	▲26.8	51.9	71.6	▲25.2

자료: KITA

〈2019~2023년 1~8월 한국의 對사우디 광물성 연료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1~8월
총 수입액	21,841	15,980	24,271	41,640	21,248
광물성 원료(원유 등)	20,927	15,163	23,091	39,959	20,381
비중(%)	95.8	94.9	95.1	96.0	95.9

자료: KITA

- 상위 5대 품목 대부분이 수입 감소
 - 광물성 연료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입이 감소했으며, 수송기계가 신규로 약 1억 달러 가까이 수입
 - 이외의 경우 대부분 소액 수입, 거래 형태 및 시기에 따라 일시적 증감 발생

〈2023년 1~8월 한국의 對사우디 수입 상위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구분 (MTI 2단위)	금액	증감률
	수입 총계	21,248	▲25.2
1	광물성연료(13)	20,381	▲25.3
2	석유화학제품(21)	303	▲23.2
3	비철금속제품(62)	283	▲20.6
4	정밀화학제품(22)	160	▲60.0
5	수송기계(74)	105	-

자료: KITA

▣ 한국기업 수출 성공·실패 사례

- (성공 사례) 신뢰성 있는 파트너와 밀접한 시장조사 통해 시장 연착륙

☞ 성공 사례 주요 내용

- 화장품 관련 기업인 A사는 국내 시장에서는 인지도가 높지 않으나 동남아 시장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인기를 끌며 사우디 바이어와 시장 진출 논의 시작
- 협업 논의를 하게 된 바이어 담당자가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과거 한국 화장품의 실패 사례 등을 파악하고 있어 A사 담당자와는 이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
-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K-뷰티만 믿고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마케팅과 유통 채널 선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
- A사와 바이어는 최초 미팅 후 코로나 기간을 포함하여 2~3년간 지속적으로 교신 및 시장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독점계약 체결
- 바이어 역시 A사의 신뢰에 부응하여 마케팅 및 다수 유통 채널 내 해당 브랜드 입점 지원
- 시장 내 A사 브랜드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최근 유명 유통 채널인 Whites에서 우수 판매 상품으로 홍보되는 등 시장 연착륙에 성공
- (시사점) 독점계약이 실패한 경우가 다수이나, A사는 바이어와 지속적으로 교신하며 브랜드의 시장 진입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사우디 화장품 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해 시도. 이후 독점계약을 통해 바이어와의 신뢰도를 구축하고 전폭적인 마케팅 및 유통 채널 진입 지원 등을 통해 우수 판매 제품으로 선정 될 뿐만 아니라 사우디 내 젊은 여성 소비자에게 A사 브랜드를 각인하며 성공적으로 시장 진입

- (실패 사례) 시장에 대한 분석 없이 무리한 수출로 시장 내 이미지 추락

☞ 실패 사례 주요 내용

- 화장품 관련 기업인 B사는 사우디 수출을 위해 자체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추진
- 현지 K-POP 인기와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 발판 삼아 현지 진출
- 바이어 통해 식약청(SFDA) 제품 등록 및 현지 시장 내 제품 판매까지 이어지며 수출 성공
-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B사는 수출량 증가를 통한 현지 시장 선점을 위해 무리하게 제품을 공급했고, 해당 과정에서 공급가 및 판매가 체계 붕괴
- 즉, 대형 몰과 같은 공식 입점 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주유소 편의점과 같은 로컬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달라지게 되었고 브랜드 이미지 하락
- 결론적으로 시장 내 해당 브랜드를 인지하는 업체나 고객은 많으나, 실제 이용하는 고객은 줄어들게 되었고 대체 브랜드로 이전
- (시사점) 사우디는 하이퍼마켓과 약국, 그리고 Sephora, Whites와 같은 화장품 전문 유통매장과 같은 주 유통 채널과 함께 트럭을 통해 주유소 편의점, 로컬 마트 등으로 판매되는 채널도 존재. 이는 주로 제품을 급처분할 때 공식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거에 제품을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인지도를 넓히는 데에는 효율적이나 제품의 가격망이 붕괴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명백한 단점 존재. B사 역시 장기적인 시장 내 전략이 부재한 채 단기에 수출액 증대 및 인지도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수출을 단행하며 소량 수요까지 모두 대응하려는 과정에서 시장 내 브랜드 이미지 하락 경험

나. 투자

▣ 한국의 對사우디 투자 진출 동향

- 2022년 기준 한국의 對사우디 투자액은 54억 2,300만 달러
 - 한국의 對사우디 투자는 2018년 반등 후 2021년까지 지속 감소해왔으나, 사우디 시장 내 프로젝트 활성화를 계기로 2022년 투자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1억 800만 달러 기록
 - 기존 건설업 일변도 투자에서 점차 제조업, 금융업 등으로 다변화

〈2018-22년 한국의 對사우디 투자 동향〉

(단위: 건, 개, 백만 달러)

연도	신규 건물	신규 법인 수	신규금액	투자금액
누계	890	264	5,816	5,423
2018	37	3	783	739
2019	30	4	181	171
2020	32	6	102	69
2021	20	4	120	51
2022	33	7	111	108

주: 누계금액은 1968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 금액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 진출 진입장벽

- 현지화 정책 강화
 - 현지인 의무 고용, 현지 기자재 조달 비율 준수 등 현지화 정책 지속 강화
 - 현지인 의무고용정책 미준수 시 직원 비자 발급 불가 등 페널티 부과
 - 현지 콘텐츠 이용 장려 프로그램 도입 기업 증가
 - 사우디에 지역본부를 설립하지 않는 기업은 2024년부터 정부기관 및 기관 발주 프로젝트 참여 불가
- 기타 불공정 관행 및 미흡한 투자 인센티브
 - 담당자 규정 미숙지 또는 자의적 해석으로 정부 행정 처리가 일관적이지 않음
 -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 관행 미준수, 대금 지연, 추가 경비 불인정 사례 다수
 - 법적 분쟁 발생 시 이슬람법 및 관행 적용으로 외국 기업의 승소가 매우 어려움
 - VISION 2030 및 국가 투자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자유특구 확장 등을 계획 중이나 주변 국가 대비 여전히 투자 인센티브 미흡

▣ 한국기업 투자 성공 사례 및 시사점

- (성공 사례) 진출기업과의 논의 후 빠른 의사결정 및 유관기관 대응 통해 진출

☞ 성공 사례 주요 내용

- 건축기자재 제조기업인 Z사는 현지 진출기업 M으로부터 공급 요청 입수
- 이후 해당 프로젝트 및 현지 시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추가적인 수요 발생 여부 조사
- 2023년 초 지사화사업에 가입하며 법인 설립 문의와 함께 프로젝트 시장 관련 문의
- 조사를 통해 현재 M사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및 기타 사우디 전 지역에서 Z사의 제품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법인 설립 절차 진행
- 무역관에서 투자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그리고 현지 비자 취득 및 서류 절차를 일괄 지원하는 민간기업을 모두 소개해주며 Z사의 법인 설립 절차 지원
- 2023년 9월, 약 5개월 정도 기간 소요와 함께 지사 설립 완료
- 관련 직원 채용 중에 있으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M사와 함께 인수된 공장의 증설 관련 논의 진행 중
- (시사점) 현지 시장 내 수요 확보 후 발 빠르게 지사화사업에 가입하며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취득하여 초기 정착 가능. 더불어 정부 부처·유관기관 등의 컨택 포인트와 서류 절차를 지원하는 업체 등을 소개받음으로써 더욱 빠르고 용이하게 절차 처리 가능. 해당 과정에서 현지 진출기업인 M사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공장 인수 및 생산능력 확인, 증설 검토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고 향후 생산 및 공급 타임라인 충족

다. 협력 유망 분야

▣ 한-중동 국가간 협력 의제 및 유망 분야

〈주요 의제 및 협력사업〉

안건 명	주요 협력사업	비고
한-사우디 Vision 2030	① 에너지 및 제조업, ② ICT, ③ 역량강화, ④ 보건의료, ⑤ 중소기업 협력 및 투자 강화 분야	5대 중점 협력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인도

- 2023년 10월, 서울에서 제 4차 한-사위 Vision 2030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한국 산업부 장관과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참여했으며 2022년 11월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로 체결된 26건*의 한-사우디 정상경제외교 성과 추진여부 확인 및 협력과제** 본격 추진 합의

* 에너지 및 제조업 11건, 스마트 인프라 7건, 역량 강화 1건, 보건의료 2건, 중소기업투자 5건 등

** 기존 39건 협력과제 이행상황 점검 및 총 17건의 신규 협력과제 발굴(총 56건 협력과제)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제조, 에너지 등 기반산업 연계 진출

- 킹 살만(King Salman) 조선소향 조선 기자재 진출
 - 한-사우디 VISION 2030의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세계 최장 부두(9km)에 달하는 킹 살만 조선소 산업단지 건설 중(2024년 완공 예정)
 - * 당초 202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및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2년 지연
 - 완공 이후 2024년부터 5년간 VLCC 14척을 건조할 예정이며, GCC 및 MENA 지역 선박 건조 확장 계획
 - 사우디 현지화 강화정책 준수 위해 공급망을 현지화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선박건조용 및 유지보수용 대규모 조선 기자재 수요 발생 전망
 - * 현대중공업, 킹 살만 조선소 컨소시엄인 IMI 지분 20% 보유 및 선박 엔진 공장 합작 건설 중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수소 공급망 구축
 - 사우디 VISION 2030 및 국가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에 의거, 2030년까지 총 58.7GW 생산 목표
 - * 태양광 40.0GW, 풍력 16.0GW, 태양열 2.7GW
 -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은 REPDO와 PIF가 각각 30%, 70%씩 담당. 현재 REPDO가 총 5 Round에 걸쳐 복수의 프로젝트 추진 중이며, PIF는 1,500MW 용량의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중
 - 정부 주도 프로젝트로 현지 콘텐츠 이용 장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단순 태양광 패널 등 소모품보다는 기술 협력이나 스마트 에너지 관리 등 솔루션 중심의 협력 검토 필요

-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프로젝트 및 기자재 진출
 - 빠른 도시화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국내 전력 수요 증가
 - 열병합발전소 및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프로젝트 발주 지속되고 있으며, 발전사업 수주를 포함 솔루션, 기자재 등 진출가능성 농후
 - * 한전, 가스발전 및 열병합발전 등 사우디 내 주요 발전사업 가속화

〈주요 공급품목 및 신규 내용〉

품목	국가	주요내용
부탄다이올*	사우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 내 유일기업으로 SipChem 계열사인 Internatioanl Diol Company이 부탄다이올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유럽 및 인도 등 기존 거래선으로 수출 중인 상황 * 약 연간 6.2만 톤 수준의 생산 및 수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사우디 내 수요 없음)

자료: 핵심관리 품목

Chapter



진출전략



- ※ P(정치정책) : 권력 집중으로 정치적 자유도는 낮으나 정책 추진력 매우 높음
- ※ E(경제) : 에너지 및 자원 보유율 높아 자생력 있으나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
- ※ S(사회문화) : 빠른 확장성 보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등 해결 필요한 문제 잔존
- ※ T(기술) : 기술 보급 속도는 빠르나 자체 개발·혁신에의 잠재성 부족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소득세는 없으며, 사우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2.5%)은 낮음 * 단,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20% 법인세 부과 • 7년 만에 이란과의 수교를 재개하며 다방면 협력 기대 • VISION 2030 등 정부 주도 국가 개혁정책 추진 • 절대왕정 하에 권력 집중으로 인한 정치적 자유도 억압
E 경제 (Econom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 및 높은 석유 수요에 기반하여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및 지속 성장 전망 * 2021년 8.7% → 2022년 3.1% → 2023년 3.1% 전망 • 글로벌 경제위기 및 러-우 사태로 인한 식량 및 상품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안정화 •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활성화 위해 투자환경 지속 개선 • 수출품이 석유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취약성 높음
S 사회문화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는 지속 성장세에 있으며, 2040년 4,490만 명 도달 전망 • 수도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며, 2040년 기준 도시 인구가 87.4%에 도달 전망 • 여성의 인권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Gender Gap 존재 • 식습관 문제 등으로 비만, 당뇨 등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보건과 정부 부담 가중
T 기술 (Technolog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인터넷 사용률을 바탕으로 IoT, AI 등 도입 가속화 • 높은 휴대폰 보급률을 바탕으로 온라인 결제, 전자상거래 확산 • ICT Sector Strategy 계획 통해 통신 효율성 제고 계획 • 기술 R&D 투자 저조로 기술혁신 잠재력 저조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SWOT 분석〉

강점(Strength)

- 다수 인프라·건설 진출 레퍼런스 보유
- 프로젝트 추진 이력 통해 검증된 기술력
- 한-사우디 VISION 2030 중점 협력 아젠다 통해 국가 간 협업 가능

약점(Weakness)

- 불확실한 행정 처리 및 복잡한 절차 등 초기 투자 진출 과정에서의 어려움 대대
- 소비재의 경우, 현지 마케팅 경험 및 성공 사례가 드물어 시장 진입장벽 존재

기회(Opportunity)

- 경기 회복 및 유가 상승으로 인프라·건설 분야 프로젝트 지속 수요 확인 전망
- 투자 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가 개선되며 기존 대비 용이하게 현지 진출 가능
- 소비재의 경우, 여전히 노래·드라마 등 한류 관심도 높아 긍정적 활용 가능

위협(Threat)

- 국제유가와 높은 연동성으로 유가 하락 시 주요 프로젝트 중단 가능성 농후
- 지역본부 설립 정책, 자국민 의무 고용 확대 등 자국 보호정책 강화
- 가격경쟁력 높은 중국 및 제3국산의 사우디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인프라·건설 분야 지속적으로 진출 필요 • 한-사우디 VISION 2030 대상 사업군 위주로 정부 및 주요 기업과의 협업 확대 	대정부 협업 및 주요 프로젝트 네트워킹 확대
ST 전략 (차별화 전략-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 수주·공급 아닌 비교우위 가지는 고부가가치 분야 시장 진출 목표 • 자국 보호주의의 피하여 직접 진출이 아닌, 기술 수출 등을 통해 기업 리스크 최소화 	기술·인적 진출 및 고부가가치 시장 타깃
WO 전략 (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시장 진출전략을 전환하여 단순 수출이 아닌 현지 파트너와의 전략적 진출 필요 • SEZ 등 개선된 투자환경 활용 	소비재시장 개발 및 투자환경 활용
WT 전략 (방어/철수-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무역주의의 리스크 최소화 위해 정부 발주 프로젝트 또는 동반 진출, 합작회사 등 검토 필요 	정부 발주, 동반 진출, JV 등 전략 다변화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4년 진출전략

구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p>정부 주도 프로젝트 참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발주 지속 확대에 따른 현지 활동 중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OM 등 주요 기가 프로젝트 하부 발주 확대 - 발전소, 변전소, 제조공장 등 현지 전력, 기자재 수요 증가에 따른 기반산업 수요 확대
<p>변화된 투자환경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지역본부(RHQ) 및 경제특별구역(SEZ) 도입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중동지역본부 정책 발표에 따라 산업군별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성 도래 - 사우디 내 4개 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여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계획 발표
<p>보호무역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민 의무 고용, 로컬 콘텐츠 이용 장려 등 제약사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민 의무 고용(Nitaqat) 비율 지속 변경 - 현지화 프로그램(LCA) 준수 의무 강화 전망
<p>산업 다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제조업 등 기간산업 외 진출 분야 다각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 공급이 아닌 고부가가치, 브랜드, 기능성 제품 위주의 시장 진출 목표 - 단순 수출이 아닌 전략적 시장 진출 방법 도모 필요
<p>Long-Term Strategy</p>	<p>사우디의 국가 개혁정책에 맞춰 단발성 수출이 아닌 장기전략 수립 통해 현지 수요에 부응하는 진출</p>

3-1. 정부 주도 프로젝트 참여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제조업 육성 및 탈석유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주도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한 전후방 산업의 낙수효과 기대
 - * 기존 국가 경제 성장동력인 석유산업의 비중을 점차 비석유산업으로 이전 목표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대형 프로젝트 하부 발주 확대에 따른 건설업·제조업 낙수효과 기대
 - NEOM, Red Sea, Amaala 등 정부 주도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이 국제유가 회복과 국가재정 안정화 덕분에 하부 계획 및 발주 가속화
 - Amiral 석유화학 플랜트 확장, King Salman 조선소 및 MAKEEN 선박 엔진 공장 건설이 지속되며, 관련 건설 프로젝트 및 기자재 수요 증가
 -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화에 따른 예상 전력 수요 대응하기 위해 발전소 및 변전소 건설 수요 지속 증가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정부 주도 및 우리 기업 참여 프로젝트 협업 통한 진출 타진
 - 사우디 정부, 도시개발계획 외 신재생에너지, 교통망 인프라, 관광·문화 등 다양한 산업 개발 프로젝트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재정에 따라 중요도 순으로 추진방안 재정립 가능성 잔존
 - 사우디 진출 이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산업군에서의 필요 기자재 등 우선 검토 및 협력 방안 논의
- (유망 품목) 건설 기자재 및 전력 기자재 등 기반산업 관련 품목
 - 플랜트 및 발전소 건설, 주택 기자재, 교통·통신·솔루션, 광케이블, 변압기 등

☞ 우리기업 협력사례(기업 간 '원팀' 구축 통해 프로젝트 수주전 협력)

- (컨소시엄 구성 및 협업 입찰 참여) NEOM 'The Line' 터널공사 수주 및 추가 입찰 수주 총력
 - NEOM 'The Line' : 삼성물산 및 현대건설 컨소시엄 참여로 수주
 - NEOM 'Spine', 'Delta JCT' : 협력하여 코리아 원팀 구성 및 입찰 수주 총력
- (구간별 수주 통해 원라인 구축)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계약 수주
 - 한국전력공사 : 사업 개발 및 운영 담당 디벨로퍼
 - 두산에너지빌리티 : 기자재 공급, 설치, 시운전 등 전 공정 일괄 수행하는 EPC

3-2. 변화된 투자환경 활용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중동지역본부(RHQ) 유치정책 통해 2024년부터 사우디 내 RHQ 설립 기업만 정부 프로젝트 참여 가능
 - * RHQ 설립 대상 기업의 기준이 있으며, 미해당 기업은 설립 의무 없음
- 2023년 경제특별구역(SEZ) 4곳을 지정하며, 입주기업에게 투자 인센티브 제공 계획 발표
 - * 기존 RHQ 투자 인센티브보다 확장된 내용이나, 아직 입주조건 등 세부사항 미발표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지역본부(RHQ*) 유치정책 통해 글로벌 기업의 중동본부 유치 가속화
 - * Regional Head Quarter
 - 2021년 1월 발표한 지역본부 유치정책에 의거하여 2024년 이후 사우디 내 지역 본부가 없을 경우 정부 발주 프로젝트 참여 불가
 - * 2023년 초 기준 약 120개 기업이 RHQ 라이선스 취득
 - 2023년 추가로 지역본부 미설립 기업의 정부 입찰 참여 가능한 예외조건을 발표했으며, 2024년 동 정책 시행 재확인
- (사우디 내 4개 지역에 신규 경제특별구역(SEZ*) 지정
 - * Special Economic Zone
 - 2023년 리야드, 자잔, 라스 알카이르, KAEC 등 4곳에 대해 신규 SEZ 발표
 - * 각 구역별 지리적·산업적 특성 고려한 중점 육성 산업군 발표
 - ** 진출 산업군별 부합 서비스 제공 및 투자 인센티브 통해 의향 기업 진입장벽 최소화 목표
 - 최대 20년까지 법인세율 5%로 인하, SEZ 내 대기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최초 5년간 Saudization 없이 외국인력 채용 가능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진출 검토 필요
- (유망 품목) 프로젝트 수요 제품 및 SEZ별 특성 산업군 대상 품목

☞ 우리기업 진출사례(제한된 정보 내 시장 선점 위한 빠른 진출 결단)

- (미개방 시장 선제 진출) 사우디 내 RHQ 라이선스 취득 및 설립
 - 삼성물산 : RHQ 정책 최초 발표 시 라이선스 취득
 - 두산에너지빌리티 : 사우디 시장 잠재력 고려하여 RHQ 라이선스 취득 및 설립 통해 시장 선점

3-3. 보호무역주의 대응전략 수립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주요 국영기업을 필두로 로컬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는 현지화 프로그램 운영
* 아랍코, SEC, SABIC 등 대기업이 운영 중이며 최근 Ma'aden이 런칭하는 등 지속 증가 추세
- 자국민 의무 고용(Nitaqat) 비율 강화 및 특수 직종 자국민 고용률 발표 등 자국민 고용률 확대 추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현지화 프로그램 이용 기업 증가 및 이용률 증가 추세
 - 아랍코, SABIC, K.A.Care, SEC 등 국영기업 위주로 현지화 프로그램 도입. 지난 9월, 국영 광물회사인 Ma'aden도 현지화 프로그램 런칭 발표
 - 자국민 의무고용정책 역시 2016년 VISION 2030 발표와 함께 대폭 강화 적용했으며, 등급별 채용 비율을 비정기적으로 상향 조정
- 자국 보호주의 대항 가능한 전략 수립 및 진출 필요
 -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동지역본부(RHQ) 설립지역 또는 경제특별구역(SEZ) 내 진출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 기업 자체적으로는 현지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또는 현지 공급망 이용해 현지화 밸류체인 기여 가능하여 사우디 요구사항 충족 가능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정부 정책과의 연동성 높아 밀접한 시장조사 통한 진출 타개
 - 현지화 정책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현지 제품 수출을 위한 벤더 등록 과정에서 현지화 요구 증가 전망
 - 대부분 정부 주도 사업으로, 국가 재정 변동이나 정책 변동에 따른 연동성이 높아 자체 진출보다는 현지 유력 파트너와의 합작사업 기회 발굴
- (유망 품목) 화장품, 의류, 식품 등 소비재 전반
 - (소비재) 시장 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수입·진출한 브랜드가 많지 않아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현지 문화와 결합한 마케팅 등을 활용한 진출 필요

- (진출전략) 기업별 규모·업종 등 고려한 진출방안 수립 필요
 - 현지화 정책은 점차 강화될 예정으로 단순 진출의 성공가능성 미약
- (유망품목) RHQ, SEZ 등 특화산업군 및 현지 공급망 이용가능 분야

☞ **우리기업 진출사례(현지화 합작회사 설립 및 SEZ 진출 합의)**

- (정부 추진 전략사업 협업) 정부 추진 유망사업에의 현지 주요기업과의 합작회사 진출
 - 현대중공업 : Aramco, Lamprell, Bahri와 컨소시엄으로 킹살만 조선소 프로젝트(IMI) 진출
 - 이후 추가적으로 Armaco, Dussur와 선박엔진공장인 Makeen 합작회사 설립(지분 30%)
 - Makeen, 사우디 정부 발표 4개 SEZ 중 라스 알 카이르 SEZ에 진출 합의되며 연락처 전망

3-4. 산업다각화 타겟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글로벌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장려 통해 다양한 산업 기반 확립 추진
- 문화·예술·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MICE 시장 육성 및 중점 도시별 이벤트 상설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국가 경제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산업 다각화 정책 확대
 - 자체기술 부족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합작투자 생산공장 설립을 통한 제조 기반 확립 가속화
 - * 킴 살만 조선소, 선박엔진공장, 자동차 조립공장, 주단조 공장 등
 - 코로나19 이후 전자상거래 급증하며 화장품, 식품, 의류 등 소비재 분야에서 해외 제품의 직접 구매 증가하며 시장 내 제품 다변화
 - 정부 주도 전시회 등에 힘입어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무체물 시장 활성화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정부 정책과의 연동성 높아 밀접한 시장조사 통한 진출 타개
 - 대부분 정부 주도 사업으로 국가재정 변동이나 정책 변동에 따른 연동성이 높아 자체 진출보다는 현지 유력 파트너와의 합작사업 기회 발굴
- (유망품목) 화장품, 의류, 식품 등 소비재 전반
 - (소비재) 시장 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높으나 수입·진출한 브랜드 많지 않아 해소되지 않고 있어 현지 문화와 결합한 마케팅 등을 활용한 진출 필요

☞ 우리기업 협력사례(사우디 스마트팜 활성화 정책 타겟으로 4개 기업 협력)

- (정부 정책목표 부합하는 전략 제시) 기업별 강점 조합하여 스마트팜 진출 협약 체결
 - 농심, 포미트, 아그로솔루션코리아, 엠에스 4개사 : 컨소시엄 구성하여 사우디 그린하우스社와 현지 딸기 생산 협약 체결(사업규모 약 3천만 달러)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 완성차 기준 한국의 대사우디 수출 1위 품목 - 지리적·기후적 특성상 수리용 부품 수요 높음
	시장동향	- 국제유가 고점 유지에 따라 내수시장 수요 증가
	경쟁동향	- 일본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 점유율 1위 - 독일, 중국, 미국이 2~4위 기록
	진출방안	- 거친 도로 사정 및 운전 습관, 더운 날씨로 브레이크 패드, 에어컨 등 부품의 정기적 교체 수요가 발생하여 소비자 및 현지 딜러 에이전트 대상 맞춤형 마케팅 필요
품목명 2		
건설 기자재	선정사유	-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기자재 수요 지속
	시장동향	- 고유가 기저가 지속되며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시장 내 중장비 및 건설기계, 부품 등 수요 지속
	경쟁동향	- 중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1/3 수준 차지 - 미국, 독일, 이탈리아가 2~4위 기록
	진출방안	- 일반 기계 등 기자재는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이 앞서기 때문에 기능성 및 특수 기자재 위주로 현지 수요 발굴 및 바이어 대응 필요
품목명 3		
조선 기자재	선정사유	- 2024년 완공이 예상되는 조선소 내 VLCC 건조를 위한 기자재 수요 급증 전망
	시장동향	- 킹 살만 조선소가 당초 계획 대비 2년 지연되어 2024년 완공 및 바로 VLCC 건조 예정
	경쟁동향	- 글로벌 조선사 및 조선 기자재 부품사 경쟁 예상
	진출방안	- 단순 제품 수출로는 현지화 프로그램 미충족 및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현지 생산공장 투자 또는 동반 진출 검토 필요
품목명 4		
철강제품	선정사유	- 다수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 한국의 대사우디 수출 주요 품목
	시장동향	- 글로벌 원자재 가격 등락 심화와 수급 불균형 있으나, 꾸준한 내수시장 수요 바탕으로 진출 필요
	경쟁동향	- 중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20% 수준 차지 - 제3국산 철강 품질 개선으로 경쟁 심화
	진출방안	- 안정적인 수요처 및 대금 결제방법 확보 필요
품목명 5		
수소 인프라	선정사유	- 정부 주도 수소산업 육성에 따른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 현재는 완전 초기 단계로 NEOM 시범 도입 진행 중
	경쟁동향	- 수소 인프라의 경우 개발 단계여서 시장 선점 및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
	진출방안	- 정부 간 협력사업 또는 동반 진출 추진

품목명 6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선정사유	- 국가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58.7GW 발전 목표에 대응 위한 인프라 수요 전망
	시장동향	- 복수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 중으로 일부 프로젝트 완공 및 가동 개시
	경쟁동향	- 글로벌 에너지기업 각축전 전망
	진출방안	- 태양광 패널 등 일반 소모품은 중국산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므로, 에너지 관리 솔루션이나 기능성 제품 위주 수출 타진 필요
품목명 7		
수송기계 (자동차, 선박)	선정사유	- 완성차 및 선박 포함하여 한국의 대 사우디 수출 1위 - 물동량 지속 증가에 따라 기존 자동차 외 화물선 수요 급증
	시장동향	- 내수시장 회복 및 국가 무역 규모 확대에 따라 품목 전반적인 수요가 지속 증가 전망
	경쟁동향	- 자동차의 경우, 현대가 일본 도요타에 이어 시장 내 M/S 2위 차지 - 중국산 자동차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상당히 빠르게 시장점유율 증가 추세
	진출방안	- 자동차의 경우 현지 단순 마케팅보다는 딜러 에이전트 통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이 중요하며, 선박 등 B2B 제품은 바이어 수요 적시 대응을 통한 거래 유지 필요
품목명 8		
주택 기자재	선정사유	- VISION 2030 하에 주택 보유율 70% 달성을 위해 주택 공급 프로젝트 활성화 - 공공/민간 프로젝트를 병행 추진 중이며, 빌라, 아파트 등 현지 주택 유형별 건설 추진
	시장동향	- 대부분 현지 건설사 주도로 추진되고 결정권이 소비자가 아닌 시행사에 있어 대부분 로컬 기자재가 이용되며 일부 기능성 제품 수입 증가 추세
	경쟁동향	- 로컬 주택 기자재가 대부분 사용되며, 소모품은 주로 중국산 저가 제품 이용
	진출방안	- 기능적·가격적으로 차별화 및 현지 주택개발사 및 ROSHN 등 공기업 대상 마케팅 필요
품목명 9		
기초화장품	선정사유	- K-드라마·K-POP 영향으로 한국 제품 선호 지속
	시장동향	- 현지 제조 기반 없어 대부분 수입 의존 - 젊은층은 인플루언서 통한 구매 확장
	경쟁동향	- 선진국 브랜드가 시장 주도
	진출방안	- 포지셔닝 및 차별화된 마케팅 필요
품목명 10		
즉석식품	선정사유	- 하이퍼마켓 내 한국 라면·떡볶이 등 식품 증가
	시장동향	- 현지 대형업체 필두로 자체 브랜드 출시 증가
	경쟁동향	- 유럽·미국과 더불어 동남아 제품이 시장 장악
	진출방안	- 현지 OEM 통한 자연스러운 현지화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건설/플랜트	선정사유	- 국제유가 회복 이후 프로젝트 시장 활성화 - 과거부터 한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분야
	시장동향	- 도시개발 프로젝트 및 플랜트 발주 확장세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및 병원·메디컬시티 설립 등 특수 목적 프로젝트 추진
	경쟁동향	- 글로벌 건설사 및 시행사 각축전 지속
	진출방안	- 기업별 최적화된 기능에 더하여 컨소시엄 형태 진출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극대화 - 네트워킹 통해 프로젝트 지속 현행화 필요
품목명 2		
의료	선정사유	- 보건헬스 기술 개발 및 현지 임상시험·시스템 정착 위한 사우디 정부의 협업 의향 높음 - 의약품 현지 생산 포트폴리오 확대 의향 높음
	시장동향	- 일부 글로벌 제약사, 현지 합작생산 진행 중 - 선진 의료기기 및 시스템 도입 활발
	경쟁동향	- 정부 주도로 화이자·얀센 등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 프로젝트 MOU 체결
	진출방안	- 공동 임상 및 기술 수출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협력 통해 초기 리스크 최소화 가능 - 현지 합작생산, 라이선싱 아웃 등 다각화 필요
품목명 3		
콘텐츠	선정사유	- 보유 자원의 콘텐츠화 추진 및 콘텐츠 도입 활성화
	시장동향	-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공연 및 프로그램 수입/현지화 추진
	경쟁동향	- 대규모 놀이동산/축제문화 등 위주로 논의
	진출방안	- K-POP 등 공연과 문화자원의 콘텐츠화 등 현지화 협의를 통한 현지 도입 추진
품목명 4		
관광	선정사유	- 관광지 개발사업 및 레저 프로젝트 개발 주력
	시장동향	- 알올라(AIUla) 주력으로 한 관광상품 홍보
	경쟁동향	- 외국인 관광 서비스업은 아직 생소하며, 다만 가이드 제품 등은 점차 증가 추세
	진출방안	- 양국 간 관광산업 및 상품 교류 추진 통해 한국기업의 현지 다양한 코스의 상품 개발 가능성 증대
품목명 5		
교육	선정사유	- 기본교육·직업교육 등 진출 가능 분야 다대
	시장동향	- 정부 주도로 기본교육 시스템 강화 - 직업교육 시스템 정착 위해 국제협력 지속
	경쟁동향	- 학교 간 협업의 경우, 유럽 국가와 경험 다대
	진출방안	- 교육로봇·드론, 시스템 위주의 강점 분야로 진출 논의 필요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방산 분야 수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 사우디 방산 전시회(WDS 2024)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관 참가 협업 	1분기/리야드
건설 기자재 수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 중동 건설기계 플랜트 무역사절단 	2분기/리야드
문화·콘텐츠 시장 진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 사우디 테마파크 전시회(SEA 2024)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 참가 협업 	2분기/리야드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 진출 매칭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 중동 조선해양 기자재 무역사절단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협업 	3분기/담맘
스마트팜 시장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 중동 스마트팜 로드쇼 	4분기/리야드
화장품 시장 브랜드 확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 중동 K-뷰티 광역사절단 	4분기/리야드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경제·통상 일정 : 왕정 국가로 해당 사항 없음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World Defense Show	2024.2.4~2.8 (리야드)	방산
Big 5 Saudi	2024.2.26~2.29 (리야드)	건축 기자재
Saudi LEAP	2024.3.4~3.7 (리야드)	ICT, 기술
Automechanika Riyadh	2024.4.30~5.2 (리야드)	자동차부품
Saudi Entertainment and Amusement Expo (SEA)	2024.5.7~5.9 (리야드)	엔터테인먼트
Saudi PPPP (Plastics&Petrochem, Print&Pack)	2024.5.6~5.9 (리야드)	플라스틱, 석유화학, 포장 등
Foodex Saudi	2024.5.21~5.24 (리야드)	식품
Saudi Infrastructure Expo	2024.9.9~9.12 (리야드)	플랜트, 인프라
Index Saudi	2024.9.17~9.19 (리야드)	건축 기자재
Saudi Build	2024 (리야드)	건축 기자재
Saudi Global Healthcare Exhibition (GHE)	2024 (리야드)	의료기기, 의약품
Saudi Agriculture	2024 (리야드)	농업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김태민	과장	리야드 무역관	+966-11-273-4496(305)	paulkim@kotra.or.kr

2024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